

광주·전남 가계빚 절반은 '주택담보'

5월 현재 11조... 2년새 28% 증가 금리추가 인상엔 이자부담 눈덩이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의 절반이 주택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5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은행과 비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12조740억원, 전남 10조4520억원으로 총 22조5260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액(11조32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광주·전남지역은 7조1690억원, 전남 3조8630억원이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지난 5월 주택담보 대출총액은 2008년 동기(8조6

■ 5월 전국 주택·가계대출 현황 (단위:10억원)

지역	주택대출	가계대출	지역	주택대출	가계대출
서울	121,922	188,343	강원	4,037	10,349
부산	19,186	29,329	충북	5,220	10,456
대구	12,854	19,714	충남	8,707	19,717
인천	24,527	33,722	전북	5,750	12,343
광주	7,169	12,074	전남	3,863	10,452
대전	8,037	13,495	경북	6,978	16,286
울산	5,767	9,687	경남	11,845	24,271
경기	99,304	149,818	제주	1,169	3,965

(자료: 한국은행)

조110억원) 대비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가계부채의 90% 가량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이자부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규모별로는 광주는 전국 16개 도시 가운데 9위였고 전남은 제주(1169억원)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액이 적은 곳으로 꼽혔다.

주택담보대출액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245조75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은 100조5860억원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캐리비안 베이 도심 댄스 배틀 캐리비안 베이이 여름 시즌을 맞아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캐리비안 베이안 베이 라이프 가이드 댄스 배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캐리비안 베이는 즉석 경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캐리비안 베이,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등을 선물로 제공했다. /연합뉴스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 러시

연간 이자 3조5000억...서민·중기 부담 가중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지난 9일 이후 3개월 양도성에금증서(CD)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를 일제히 0.17%포인트 인상했다. 중소기업대출도 금리인상 행진에

합류했다. 시중은행인 A은행의 내부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평균 0.15%포인트 올랐으며 B은행의 중기 대출 금리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전방위로 인상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이 5월 말 기준으로 약 140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

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늘어나는 연간 이자비용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은 금리가 연 4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 등에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간 중간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저주회사 등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광주지역본부 고객만족도 1위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는 "광주지역 본부가 '2010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평가'서 7대 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역 본부는 고객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CS운영협의회 개최, 우수영업점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부진영업점 현장교육 등을 실시,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하이패스 단말기 도공, 보상판매

한국도로공사는 2003년부터 보급된 하이패스 단말기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보상판매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판매 기간은 9월10일까지이며, 기존 단말기를 해당 제조사에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 된다. 보상판매 단말기는 서울이동통신 등 5개사 7개 모델에 총 96만7000대에 이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본부세관 수출기업CEO 대상 FTA 활용 등 논의

광주본부세관은 대(對) EU 및 아세안 등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는 오세철 삼성전자광주전자 상무, 유덕환 금호타이어 상무, 이성길 대우일렉트로닉스 상무 등 14개 수출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진인근 광주본부세관장은 간담회



에서 대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기존 FTA와 달리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큰 만큼 수출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EU FTA 협상 때 EU 측이 우려했던 과다환급 품목, 중국산 우회 수출 우려 품목,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관세율 품목 등은 차후 원산지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FTA 활용을 위한 정확한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공동 원산지 정보교환 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 전산 인프라 도입 등 본격적인 FTA 교역체제 돌입에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식펀드 11일째 1000억규모 유출

자금 이탈 가속

국내 주식펀드에서 11거래일째 자금유출이 이어져 가운데, 유출규모가 다시 1000억원대로 확대됐다. 해외 주식펀드에서는 40일째 자금 이탈이 지속됐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1천31억원이 감소해 11거래일째 순유출이 이어졌다. ETF를 포함하면 1777억원이 순감했다. 같은날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355억원이 빠져나가 40거래일 연속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머니마켓펀드에서 3065억원이 빠져나가면서 펀드 전체로는 5795억원이 감소했다.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103조9072억원으로 전날보다 8908억원 줄었고, 전체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321조2732억원으로 1조2780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지수가 1,700선 중반에 형성돼 있는 두터운 저항대를 뚫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박스권 돌파의 동력은 외국인 투자 중심의 수급장세다. 또 연기금의 지속적인 측면지원도 최근 국내 주식형펀드의 대규모 환매 움직임에도 시장 내 양호한 수급을 이끌어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추가 모멘텀이 왜야할 할 실적변수는 주가에 큰 힘을 보태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성과가 대부분 훌륭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정점론 또한 만만치 않아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1,700대 중반의 저항선을 넘어서기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연중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지수는 연초 대비 4.5%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 매우 드물다는

상승탄력 기대하기엔 부담

'블루칩' 중심 조정시 매수

점을 감안하면 현 수준에서 빠른 상승탄력을 기대하기에는 고가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에도 코스피지수의 상승률은 50%에 달했던 만큼 이머징마켓에서 한국 증시가 가지는 가격적인 매력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 다. 따라서 금리인상 이후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유동성 장세가 현재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칫 이와 같은 수급장세가 불안정한 변동성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외국인 유동성을 잡지거나 어렵다면 이틀만 뒤쫓는 추격매수의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어닝스 시즌을 맞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꺾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종목 선정에 한층 주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양호한 수급은 강한 추가상승세를 이끌기보다는 지수의 하방지지력을 뒷받침해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낫겠다. 최근 시장의 인기를 끌었지만 실적발표 이후 추세이탈의 조짐도 내비치고 있는 소위 자판기 종목들보다는 우량 블루칩을 중심으로 조정시 매수를 겨냥하는, 한 템포 늦춘 시장대응을 권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광주MBC성태여행 MBC TOUR SUMMER VACANCE

여름 휴가 떠나고 싶다고 생각 하시나요? **여름 제주 생태여행** 어떠세요?

광주 MBC TOUR 여름 제주 생태여행 요금 210,000원

일시: 2010년 7월 10일 - 8월 22일 까지
장소: 제주도

고등판, 장류, 로렌스호, 숙소: 일반호텔상품, 고급호텔이름, 민서

이색관광 3대 3인방

목적: 세계 자연유산 현령(성산 일출봉) 및 화순해수욕장(여름이벤트)이벤트, 천황의 별장, 미션랜드, 순이체질, 새연교, 소나무 재피떡, 피서지랜드, 대정읍, 천황의 여름다방, 할렐루야, 신축한 해변 호텔

문의: 062) 973-9114 http://imbctour.com